



만나고 싶었습니다

동향정보분석실

세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변한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계는 가장 빠르게 변한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계 곳곳의 정보들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고급 정보로 가공하고, 수요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 연구자들이 세계 과학기술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과학기술계를 선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정보 메신저들, 동향정보분석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글 _ 윤정선, 공수연 · 동향정보분석실 · jsyoon, 79kkyarr@kisti.re.kr
사진 _ 김희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우리 실은요...>

<우리 실은요...>

동향정보분석실이 하는 일을 간단히 정의하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들을 수집하고, 각 정보 이용자들의 성격에 맞게 분석하고 가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는 다양한 이용자 계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인기 서비스다. 세계 주요도시에 있는 100여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발표된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즉시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발표된 8개 언어권의 정보를 단 하루 만에 제공함으로써 '자고 나면 새 기술이 개발돼' 있는 급변하는

신박람회에서 과학기술 대표 혁신사례로 선정될 만큼 국내외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업이다. KOSEN 서비스 중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과학기술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서로 자율적인 답변을 주고받는 'What is?'는 가장 호응이 높은 서비스다.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는 매우 의미 깊은 사업이다. 북한과의 활발한 과학기술교류를 통해 한민족의 통일을 준비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제공한 방대한 백두산 자료를 CD 형태로 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계 방방곡곡

과학기술 정보를 찾아 분석하라!!



세계 과학기술계의 흐름을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이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부 관계자, 출연연 기관장, 국회의원 등 과학기술계 리더급 인사들에게 정기간행물 형태로 제공된다.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이 'TLD(Techno Leader's Digest)'는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3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한민족 회원들이 KOSEN이라는 온라인 사랑방에서 각국에서 수집한 과학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로써, 지난 5월 정부혁

작한 '백두산의 자연'을 만들었고, 올해 초에는 남북한 천연기념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nm.nktech.net)를 열어 과학기술 관련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북한을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일반 시민에서부터 최고 정책결정자에 이르기까지, 동향정보분석실이 하는 일은 참 여러 곳에 가지가 닿아있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신의 그리고 최고급 정보의 메신저로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첨단에서 이끌어가기 위해 오늘도 동향정보분석실 사람들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우리 실 사람들 은요...>

동향정보분석실 사람들은 왠지 정답다.

실원 각각의 품성이 모두 동글동글 부드럽고 여유가 있다. 전 세계 곳곳의 최신 정보를 수집해 유통하는 '정보의 메신저' 역할을 하려면 무척이나 발 빠르게 살아야 할 텐데 모두 부드러운 걸 보면, 참 무난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구나 싶다.



한 선 화 실장

한 마디로 부럽다. 우아한 외모에 완벽한 일처리, 좋은 엄마와 아내, 거기다 만능 스포츠 우먼이라니. 도대체 그 에너지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지 궁금해진다. 잦은 출장과 바쁜 업무 때문에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 써도 모자랄 텐데, 못하는 운동도 없고 예쁜 두 딸과의 시간에도 소홀함이 없다. 회식이라도 할라치면 순식간에 광란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한 그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미래의 모델로 정해 두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 현재 동향정보분석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 현 규

대한민국에서 대북사업 하는 사람치고 최현규 이름석자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 사업을 총괄하며 민감하기 그지없는 대북사업을 무리 없이 잘도 해 내는 그다. 업무에 너무 몰두해서인지 말투나 동작

까지 다소 북한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 일을 할 때는 호랑이 선생님 같이 차갑지만, 마음은 너무도 따뜻해서 실원들 모두 그의 자상한 배려 하나쯤은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다. 거기다 집에서는 설거지를 전담할 정도로 자상하다니, 참 안팎으로 관찰은 남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최 성 배

두 아이와 전화할 때는 목소리부터 완연히 달라진다. 세상에 그렇게 자상하고 좋은 아빠가 없다. 실원들에게도 그의 다정함은 계속된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고, 실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주고 살펴준다. 화사할 만큼 밝게 살지만 노래방에서는 슬픈 발라드를 즐겨 부를 줄 아는 낭만파. 사적인 자리에서는 친 형, 친 오빠 같은 그다. 현재 전 세계의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해 유통하는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윤 정 선

머리에는 이공계의 전문 지식, 가슴에는 인문계의 섬세함이 자리 잡고 있는 그녀. 그녀의 손길 따라 실에는 화분이 하나 들쭉 늘어나고, 삭막한 사무실에도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해진다. 매우 이성적으로 빈틈없이 일처리를 하면서도 따

뜻한 감성으로 식물을 기르고,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다. 현재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특유의 따뜻한 감성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퍼져 있는 한민족 과학자들을 일체의 잡음 없이 어우르고 있다.



강 현 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뛰어난 학식과 더불어 풍류 꽤나 즐길 줄 아는 선비가 아니었을까 싶다. 크고 우람하며 호탕한 경상도 말투를 봐도, 업무와 박사과정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술 한잔(?)의 여유를 잊지 않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거기다 매우 가정적이기까지 한 그.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영화 보는 것을 사랑하는 남자다. 매일 아침 시원스런 목소리로 안부를 물어주는 그는, 현재 고품격 주간정보 서비스 TLD(Techno Leader's Digest)를 총괄하고 있다.



박영욱

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단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다. 편하고, 따뜻하며, 옆으로 쉴 줄 모르고, 성실한 그. 얼마 전 예쁜 공주님을 얻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진 탓인지 더욱 매사에 열심이다. 곧 외롭던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한다 하니 머지않아 아내의 내조에 힘입어 더욱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웃음소리의 소유자인 그는, 현재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웹 사이트 콘텐츠 기획 및 사업단과의 협력 추진을 맡고 있다.



백명수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왠지 허전하다. '항상 즐겁게 살자'가 삶의 모토여서 그런지 볼 때마다 웃는 낯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 웃게 하는 재주도 많아서, 그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겁다. 그러나 웃음 속에 진지함도 잃지 않는 그. 집중해서 깔끔하게 일도 잘 하고, 큰 형으로서 후배들에게 충고를 할 때면 매섭고 냉철하다. 일, 운동, 술 모든 것에 적극적인 그는 오랜 자취생활로 살림도 수준급이란다. 현재 KOSEN 및 재외과학 홈페이지의 사이트 유지보수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정화

똑 소리 나는 여자다. 업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간 모든 면에서 아무지다. 본인에게는 칼같이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해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 일처럼 열심히 설명해주고, 남의 말도 참 잘 들어준다. 물론 진심어린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다른 실원의 기쁨을 내 것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넓은 그녀를 모셔가는 남자는 그야말로 복덩이를 얻는 셈이다. 차가운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고루 갖춘 그녀는 현재 TLD(Techno Leader's Digest)의 레이아웃 편집 및 교정을 맡고 있다.



한근희

하얀 얼굴에 조용한 말투, 조금은 차가워 보이는 표정. 얼핏 새침때기 같이 보이는 그녀는 그러나 매우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다. 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또한 철저해서 말은 바 일처리에 똑 소리가 난다. 그런 그녀가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11월의 신부가 되기 위해 행복한 분주함에 빠져있는 그녀의 앞날에 아름다운 장밋빛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현재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웹사이트 관리 및 정책보도자료, 기술시장리포트 등의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연

우리 실의 '행복 메신저'. 때로 건조해질 수 있는 실 분위기도 그녀의 해맑은 웃음 한 자락이면 금세 따뜻해진다. 그녀의 상큼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 형제 같고 친구 같은 화기애애한 실 분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똑 부러지는 외모처럼 일처리 또한 빈틈이 없다. 사람 욕심, 사랑 욕심 더불어 일 욕심까지 많아 항상 바쁠 수밖에 없는 그녀는, 현재 KOSEN에서 회원서비스와 홍보, 해외 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성호

우리 실의 꽃미남이다. 그러나 얼짱보다 더욱 중요한 건 그가 지독한 욕심쟁이라는 것이다.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것 같다. 어찌나 일 욕심이 많은지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데다, 석사과정까지 공부하느라 언제나 수면부족이다. 늘 열심히 살아가는 열혈청년인 것은 보기 좋으나, 가끔은 몸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도 회식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화끈한 매너와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으로 좌중을 제압하는 신세대다. 현재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 웹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이영훈

얼핏 보면 만화 주인공을 닮았다. 80년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캐릭터 구명단과 비슷한 분위기의 그. 만화 속 구명단처럼 엉뚱한 말도 잘 해 사람들을 늘 유쾌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만큼 기발한 아이디어도 참 많은 사람이다. 그의 별명은 '친절한 영훈씨'.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젠틀맨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KOSEN 업무를 맡고도 늘 즐거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성격 때문인 것 같다. 현재 KOSEN에서 KOSEN REPORTS 게시판의 분석자료와 학회보고서 자료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다.



강선혜

우리 실의 삼순이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속의 답답함이 싹 가시는 귀엽둥이 그녀는, 삼순이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격 시원시원 하고, 귀엽고, 운동도 잘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거기다 실의 막내답게 유행의 첨단을 오가는 언어구사로 우리 실의 유행민감지수를 올려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녀. 울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맘 좋은 남자친구만 하나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춘일 것이다. 현재 KOSEN에서 일반 정보 관리를 맡고 있다. 